

연휴 광주·전남 잇단 대형 교통사고 ‘참변’

담양서 승용차 빗길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모자 등 3명 사망 광주서 신호위반 택시 횡단보도 덮쳐 3명 숨져...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한글날 연휴 광주·전남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마주오던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해 연휴에 친정에 가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고, 보행자들이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치어 사망했다.

9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0분께 담양군 대전면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경차와 정면 충돌했다.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2차로를 달리던 경차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뒤따르던 차량 2대까지 연쇄적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와 경차 운전자 30대 여성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B씨의 아들 C(8)군은 구조 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인근 차량들의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차량이 새벽에 내린 비로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미끄러진 것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빗길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수막현상에 따른 미끄러짐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은 후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국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지만 A씨와 B씨 모두 과속을 하거나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가 운전하던 경차의 앞부분이 모두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점을 보면 사고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담양에 거주 중인 A씨는 이날 광주에 있는 친구

를 만나기 위해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B씨 모자는 연휴를 맞아 담양에 있는 C군의 외갓집을 방문 하러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광산구에서도 이날 3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

동한 병원 앞 사거리에서 택시가 나주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가던 중 빨간 신호에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횡단보도를 덮치기 전에 신호를 받고 출발한 승용차를 먼저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40대 남성 1명, 50대 여성 1명,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택시에는 나주에서 탑승한 승객 1명이 타고 있었고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택시 운전자 D씨는 전기자인 본인의 차량결함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D씨는 "당시 2차로로 운행 중이었는데 브레이크를 조작했지만 속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차량이 급발진해 제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경찰은 D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D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민기 기자 kdi@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방대원들이 지난 8일 오전 담양군 대전면의 한 국도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담양소방제공>

집라인 공중서 멈춰 탑승객 '3시간 공포'

119산악구조대, 60대 남성 구조

지리산 자락인 구례에 설치된 집라인(Zipline·와이어를 이용한 하강 체험시설)이 고장이 나 60대 남성 탑승객이 3시간여 동안 공중에 매달렸다가 무사히 구조됐다.

9일 구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구례군 광의면의 지리산 자락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집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도중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119산악구조대는 신고접수 3시간여 지난 오후 1시 40분께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탑승한 집라인 코스는 1.1km길이의 출발 지로부터 700m 떨어진 지점 지상 20m 높이에서 운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공중에 고립된 A씨를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집라인 설비는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가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건설협회원 등록 40대 징역형

국가 기술 자격증 등을 불법으로 빌려 건설협회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국가 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건축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고 65차례 건설기술 경력증(초급·특급)도 불법으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격증과 경력증을 빌려 건설협회를 설립한 뒤 대한건설협회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범행의 횡수가 많고 대여 기간이 긴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국 편의점 돌며 알바 위장취업 금품 절도

광주지법, 20대 2명 징역형 선고

전국 편의점을 돌며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 각각 징역 3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초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14차례에 걸쳐 165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자기기를 렌탈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새벽 심야시간대에 편의점에 홀로 근무

하면서 현금과 담배 등을 훔쳐 인근에서 렌터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에 있는 각종 기프티콘과 도서상품권 카드번호를 입력해 현금화하기도 했다. 한 편의점에서는 실무교육을 받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을 들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 취업시 업주들과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실행한 점, 금원을 대부분 유혹비로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A씨가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버스기사 사전동의 없는 블랙박스 녹음 위법”

광주지법, 보험사기 무죄

버스 운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음성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광주시 북구 한 차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빼돌리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고 추가로 특약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지급보류 조치로 미수에 그쳤다.

수사기관은 사고당시 버스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의 “그대로 받아버려라”는 음성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녹음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버스회사가 A씨에게 녹음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안내 문구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에 블랙박스 저장 파일을 제공할 당시 A씨에게 통보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한 수집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할 때는 녹화된 영상으로 충분하는데도 운전하는 모든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A씨 범죄사실의 증명에 이 없는데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 금융감독원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